

曲學阿世(곡학아세)

正道(정도)가 아닌 學問을 가지고 世上에 아부한다는 뜻이다.

평소의 자기 소신이나 철학 등을 굽혀 권세나 시세에 아첨함을 말한다.

前漢(전한)의 4대 황제인 景帝(경제)는 즉위 하면서 天下에 어진 선비를 두루 구하였다.

輓固生(원고생)은 齊(제)나라 사람으로 詩經(시경)을 밝게 알고 명망이 있는 學者라해서 博士(박사)를 삼으려고 부르게 되었다. 그는 강직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곧바로 말을 하는 인물이었으나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았다. 그러나 그는

「젊은이들에게 지지 않을테다」라고 굳게 마음을 다지고 궁궐로 향하였다.

輓固生(원고생)이 權力을 두려워하지 않고 直言(직언)을 서슴치 않는 성품임을 잘 아는 似而非(사이비) 學者들은 그의 任用을 강력하게 저지하려 하였다. 그를 가리켜 시골에서 중손자들이나 돌볼 늙은이라며 비난과 증상모략을 다했다.

景帝의 어머니인 竇太后(두태후)는 老子를 좋아했다. 어느날 太后가 원고생을 불러서 老子的 책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원고생은

「그와 같은 책은 종들의 말에 불과합니다」라고 서슴치 않고 말하였다. 이 말에 화가난 太后는 원고생을 가축 도살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잡으라고 명령 하였다.

景帝는 원고생이 바른 말을 했을뿐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몰래 예리하게 잘드는 칼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원고생은 어려움 없이 돼지를 죽일 수가 있었다.

이로부터 얼마를 지나 景帝는 원고생을 청렴결백한 선비라 하여 清河王(청하왕)의 太傅(태부)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생은 오랫동안 太傅(태부)의 所任을 끝낸 다음 病이 들어 벼슬을 隱退하게 되었다.

景帝 다음으로 武帝(무제)가 즉위하자 원고생을 다시 불러내었다. 그러나 아부를 일삼는 많은 유학자들이 원고생을 꺼려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원고생은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나이 90입니다.」

武帝는 하는수 없이 원고생을 돌려 보내고 薛(설)나라의 公孫弘(공손홍)을 불러 들였는데 그도 원고생을 꺼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원고생은 공손홍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학문의 길은 어지러워지고 俗說(속설)만 난무하고 있다. 이대로 둔다면 유서 깊은 學問의 전통은 요사스런 학설로 인해 제모습을 잃게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대가 學問을 좋아하는 젊은이라고 하니 바른 學問을 배워 世上에 알려주오. 자기가 믿는 學說을 굽혀서(曲學) 세상의 속물들에게 아부(阿世)하지 않기를 바라오」

이 말을 들은 공손홍은 자신의 무례했던 것을 부끄러워 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 故事에서 曲學阿世(곡학아세)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유모어 코너

내발도 못민어

어떤 일간이가 신발 상점에 신발을 사러와서는

「아참 내 정신좀 바라 발치수를 쟈 끈을 깜박 잊고 왔네」 하며 혀를 차고 있었다.

상점 주인이

「사모님 신발 사시려고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내 신발 사러 왔지요」

상점 주인이 꺾꺾 웃으며

「허허 그럼 그 발에 직접 맞추어 보고 사면 되지 않소」 했더니

「아니오. 재어 놓은 것은 분명히 내가 직접 정확하게 쟈것이라 확실 하지만 발이야 어디 민을 수 있나요」 하더라나.

愚問愚答(우문우답)

팔푼이가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거기 일일일일번 입니까?」

「아니요 천백십일번입니다.」

「아 일일일일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소 천백십일번이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잘못걸린 모양이로군요. 밤중에 일어나게 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소 전화가 걸려오면 어차피 일어나야 하니까 뭐 당신탓은 아니요.」

韓國의 地名由來

서울 宮井洞(궁정동)

서울 鍾路區 北岳山 밑에 있는 宮井洞은 그 전에 七宮과 궁궐에서 사용하던 우물이 있어 宮井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七宮은 원래는 大宮이라 하였었는데 英祖때에는 毓祥宮(육상궁), 毓宮(육궁)이라고도 불렀다. 六人의 後宮을 제향한 곳으로 日韓末에 순빈 嚴씨 德安宮을 합해서 七宮이 된 것이다.

朝鮮 肅宗(숙종) 임금때 孝子洞에 사는 崔씨 집 처녀가 宮女로 들어왔는데 착한 崔씨는 장희빈의 모략으로 쫓겨난 王妃 閔씨를 위하여 밤마다 몰래 기도를 드리다가 暗行하던 숙종에게 발견되어 임금은 기특한 崔씨를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탐지한 장희빈이 궁녀 崔씨를 몹시 학대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숙종이 낮잠을 자다가 꿈에 내전 앞마당에 큰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 속에서 용이 기어나오려다 빈사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고 잠이 깨어 마당에 가보니 과연 큰 항아리가 었어져 있었다. 숙종이 항아리를 들추고 보니 빈사의 지경에 이른 궁녀 崔씨가 쓰러져 있어 崔氏를 이곳 육상궁에 있게 하고 뒤에 장희빈에게 賜藥(사약)을 내렸다. 그때의 궁녀 崔씨는 얼마후 옥동자를 낳았는데 그 분이 바로 21代 英祖 임금인 것이다.